

[오피니언]

다산포럼

성유보



박정희씨의 '유신시대'였던 1970년대는 '긴급조치 시대'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긴급조치 1호'와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것, 그러한 주장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군 관용해서는 안 될 한 가지 정치행태가 있다. 독재자, 또는 독재세력이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사회이다. 독재세력은 '만능', '정보도, 폭력도, 독점하려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절대관용과 공존

기고했다." "모리악은 '르 피가로'지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과오를 범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고하면서 관용을 위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위원회'에 대한 이승만의 탄압에 일제 때의 고문경찰들이 앞장섰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군국주의와 독재에 대한 이러한 불감증이 이승만의 장기집권,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체제, 전두환의 '피의 정권'을 낳았다. 그 후유증으로 한국사회가 이 정도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바쳐야 했다.

시설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당면하다

광주시가 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 2003년 11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가격 상승률(3.1%)이 물가 상승률(2.4%)보다 현저하게 높지 않고, 최근 주택차량도 최고 1.5 : 1로 매우 낮은 등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실상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1·11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방파제 위로 묶여 놓고 있는 것은 건설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지방 썩이기'에 다를 바 없다.

광주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미 1만 가구에 육박하고 주택가격도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내림세를 나타내며 투기 및 전매행위가 사라졌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공급 과잉 상태인 지역

정부는 지방의 규제를 일시에 풀면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이고 행정권의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에 누가 투기를 하겠는가.

공기업 윤리경영·사회공헌 F학점이라니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공헌이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기업들이 방안경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에도 별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갈수록 떨어져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동 등이 모두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객 충성도' 조사에서도 17개 공기업 가운데 11개사의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기업에 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간강생산성본부가 일반인대상 8개사와 기업·기관대상 9개사 등 공기업 17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2006 공기업 고객만족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대상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76.1이었던 윤리경영은 68.3점에 그쳤다. 항목별 점수가 75점은 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경영은 F학점 수준이다. 특히 '방안경영 등 사회문제 유발 정도'는 66.5점에 그쳐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사회적 공헌 역시 일반인 대상 공기업 64.7점, 기관·기업 대상 공기업 62.8점으로 매우 낮았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할

우리 사회는 갈수록 기업에 대해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세계적 추세다. 과거 잘못된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기업 스스로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민간기업이 공기업 같은 경영성적표를 받았다면 최고경영자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다 고객들의 신뢰마저 떨어졌다면 경영사태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방안경영을 도려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감도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촉구한다.

'관용사회'가 관용해선 안되는 것

관용사회가 관용해선 안되는 것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군국주의자를 관용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사회가 국민들의 저항권을 고집스레 인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용사회'의 모델이라고 할 만한 프랑스가 1945년 세계 제2차대전 직후 이 문제에 부닥쳤다. 나치 협력자 숙청 문제였다. 필자가 늘 존경하는 주시밀선생은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이라는 저서에서 알베르 카뮈와 프랑소와 모리악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공범자들 및 그 사상의 청산문제, 그리고 민족반역자 청산문제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숙청재판소는 총 5만여 건에 대해서 유기 강제 노동형, 종신 강제 노동형, 금고형, 사형선고를 내었고 실제로 800명 가까이 사형되었다고 한다. 이 대숙청에는 사회 지도층, 고위 군부, 정치인들, 언론인들, 방송인들, 출판인들, 영화인들, 작가, 예술인들이 총망라되어있었다고 하며, 이와 별도로 시민법정도 4만5천여 명에게 부여죄의 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러자 친일파들은 이승만독재에 편승하여 득세를하였다. 파리해방을 위한 시민 봉기 때 파리 경찰이 앞장섰던 데 반해서 남한에서는 제한국회의

"우리는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재의 공범자가 된 과거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민주주의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어떤 독재세력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굴종하지 않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다." 카뮈가 60여 년 전에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기억을 기초로 하는 정의"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언론·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경완



2008년 10월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람사회의)'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다. 이 때문에 지난 2월2일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여러 민간환경단체들이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에게 '습지'란 단어와 '람사'란 단어는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희는 경남에서 개최되지만 전남의 훌륭한 갯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체별로 충실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람사협약에서도 권유하는 CEPA(습지인식증진) 프로그램의 활발한 적용이 필요하다. 습지인식증진 프로그램이란 지역주민들이 습지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보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을 이야기한다. 가령 우리지역 갯벌이 어디에 어떻게 있으며, 어떤 생물들이 서식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배우고 홍보하는 것

국제적인 습지보전 축제를 준비하자

풍부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습지에 기대어 인간이 삶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럼 람사(Ramsar)회의는 뭐가? 바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 회의다. 1971년 이란의 작은 도시, '람사'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이 시작된 것이다.

이다. 이미 지역별로 NGO들의 교육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다. 하지만 람사회의를 계기로 지역의 습지와 갯벌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하고, 홍보하는 민간협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이같은 탄탄한 준비를 통한 습지자료 목록과 주민협력의 토대위에서 각국의 습지전문가들을 무안갯벌에 초대하고 싶다. 붉은 흙을 배경으로 한 리아스해안의 아름다운 갯벌경관과 무안만의 독특한 갯벌문화에 외국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전세계에 우리 갯벌을 널리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마지막으로 람사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정책과 습지관리 수준이 국제적으로 수준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더 이상 습지훼손, 갯벌매립 등이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 <푸른무인21협의회 사무국장>

휴대폰 단말기값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퇴근길에 단말기 값이 무료라는 얘기를 들었다. 단말기 값은 보조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깎아주고 나머지 금액은 30만원짜리 무료 통화권으로 대체해주니 공짜라는 것이다. 바로 4년동안 쓰던 구형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꾼다. 그런데 이 무료 통화권이라는 것이 쓰다 보니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백 번씩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의 10배에 가까운 요금이다. 30만원 짜리 무료 통화권이라도 실제 가치는 3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게 웬일이야 싶어 즉시 전화를 했더니 대리점측에서 하는 말이 대뜸 "요즘 무료 휴대전화 어디있느냐"고 했다.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공짜만 밝히는 세태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큰 소리를 쳤다. 어처구니없었다. 순간 사기꾼같은 사람들에게 속은 내가 부끄러웠다. <이동현·광주시 남구 덕남동



곰과 함께 춤을



곰이 춤을 춘다면 믿을까. 물론 서커스단 공연을 볼 때면 곰들이 탭댄수에 맞춰 일어서서 빙빙 돌기도 하고 동물원 사파리에 가면 곰들이 박수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춤이 아니다. 강요된 동작일 뿐이다. 스스로 흥에 겨워 추는 춤, 이계 진짜다. 곰 새끼들이 서로 건들고 넘어지고 하는 장난, 보는 인간 입장에서 볼 때면 그게 무슨 춤이냐고 할지 모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일종의 춤일 수 있다. 위 사진에 나오는 곰들, 순간 포착을 했는데 찍어놓고 보니 마치 포크 댄스 경연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이 장면은 먹을 걸 기대하고 일어서

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일어난 일이다. 한 마리는 미려이 남아 결론으로 쳐다보고 있고 또 한 녀석은 이미 가장 없음을 알고 막 뒤돌아서서 앉을 자리를 찾는 중이다. 요즘은 동물사이에 식품을 붙인대든지 동물과 동물끼리 이어붙인 합성사진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 디지털 세대에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나마 동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행여 그것이 인조적인 동물의 세계까지 왜곡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한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봉투값 받지 않는 것 몰래 찍어 구청에 고발 해서야

얼마전 어머니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희한한 일을 겪었다. 소위 말하는 봉파라치의 습격을 받았는데 씁쓸했다. 약국으로 30만원의 발품통지서가 남아있다. 손님에게 봉투를 내주고 봉투값 20원을 안받았다는 것으로, 누군가 몰래카메라로 그 현장을 촬영하여 구청에 고발한 것이다. 부모님이 관공서에서 사실을 확인하려 갔다가 몰래카메라로 찍힌 비디옌을 보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원을 요구 받는다. 그것도 대형마트에서 20원을 내는 것은 요즘 그나마 사람들 인식 속에 일반화되어 있지만 아직 일반 가게에서 작은 물건을 사고 봉투값 20원을 요구할 때에는 아직 받는 사람들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걸끄러울 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약국도 그저 자그마한 가게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수증에 봉투값 20원을 안 적었다는 이유로 연말에 신고할 당해 벌금을 무니 좀 씁쓸하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려면 모든이들의 공감에 있어야겠고 다른 약국이나 업소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인자·광주시 남구 백운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等鼓

최근 경남 창원지법 한 부장관사의 감동 판결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는 카드빚을 못갚아 여인숙에 투숙, 자살을 시도하다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자살'을 10번 반복하도록 해 '살자'로 들리지 않느냐며 바쁜 삶을 주둔했다. 또 책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도 건넸다. 고난과 반감에 악수하기,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등 내용이 담긴 책을 읽고 과거를 돌아보고, 새 삶을 살길 바라는 뜻에서.

감동 판결



그는 또 뇌물수수 등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서릿발 같은 판결을 내리는 반면 어려운 환경의 피고인에게는 '따뜻한' 판결을 내려줬다. 1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창원군수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취업에 실패, 위조수표를 유통시킨 대학생에게는 "우리 사회의 인제로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집행유예에 선고를 내렸다. 그런가 하면 상습본드 흡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살을 포기하지 말라"며 벌금

형을 선고한 뒤 책 '마시멜로 이야기'를 선물하기도 했다. 불경 가운데 잡보장경(雜寶藏經)은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無財七施)를 전해준다. 첫째는 남의 일을 돕는 신시(身施)요, 둘째는 따뜻한 정을 주는 심시(心施)다. 셋째는 다양한 논술을 주는 안시(眼施)요, 넷째는 온화한 얼굴로 대하는 화안시(和顏施)다. 다섯째 언어시(言語施)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 주는 것이요, 여섯째 상좌시(床座施)는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 방사시(房舍施)는 하룻밤 묵어갈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석가모니는 이 가운데 '화안시'와 '인사시'를 으뜸으로 꼽았다.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고 좋은 말로 베푸는 것이 제일이라는 얘기다. 작은 감동을 크게 느낄 줄 알아야 큰 감동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 우리 주변이 '무재정사'를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했으면 좋겠다. /김우석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孝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자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29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 치 부 2200-616	문화생협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제 부 2200-617	여론제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78)	조 사 부 2200-57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